

## 大學에서의 進路指導

金 忠 起

(建國大 教育學科 教授)

## I. 첫머리에

요즈음 進路教育(career education)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 교육받은 인간이 사회로 나아가 전공한 분야에서 不適應과 不滿을 나타내지 않고 만족스럽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自我實現의 경지를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육이 바람직하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에서까지 진로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진로지도가 과연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자도 있겠지만 필자는 대학에서도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싶다.

그간 대학을 상징해 온 象牙塔이란 말은 辭典에서 보면 예술지상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俗世를 떠나 전혀 정숙한 예술을 즐기는 境地, 혹은 현실도피적인 관념적인 學究生活이라 쓰여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 이같은 사전적인 뜻을 아무리 융통성 있는 轉移 개념으로 사용한다 해도 도무지 그 과녁이 맞지 않는 死語가 되어 버린 느낌을 받는 것은 웬일일까.

일찌기 철학자 야스퍼스(Karl Jaspers)는 「대학의 이념」(The Idea of the University)이란 저

서에서 대학의 機能을 세 가지로 말한 적이 있다. 첫째는 직업적 지식을 가르치는 專門學校로서의 기능, 둘째는 人間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세째는 순수한 學問研究機關으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서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목적이 첫째는 직업을 갖기 위한 방편, 둘째는 人格完成, 세째는 眞理探究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대학은 「상아탑」「진리의 탐구」「정의와 자유」 등의 순수한 文句들로서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개념은 고대 그리이스, 플라톤시대부터 중세까지의 개념이었고, 근대 이후 지식의 폭발적 증대와 관료 국가의 등장은 이러한 대학개념에 지배체급의 생산이란 가장 合理的인 役割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潮流는 이 시대에 이르러 대학을 「상아탑」의 개념보다 知識人 내지 전문가 壘産의 殿堂이란 뜻이 보다 효율적이고 남특적인 것으로 이해되게 하고 있다. 대학의 보편적 개념으로 여겨지는 眞理探究體보다는 우리 한국의 大學生이 느껴야 할 것은 대학의 의의와 역할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職業에 두 가지 土齣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대학은 통합된 지식의 탐구와 아울러 학문적 견해에 대해 平生을 헌신하도록

고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專門人으로서 교양과 지식을 겸비하고 응용력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적응되어 창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指導育成해야 된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적 변천상황에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자기의 適性이나 能力, 興味, 人性에 알맞게 配置되어야 개인의 人力 손실을 막고 국가적 차원의 人力配分에 적합하여 適材適所에서 社會奉仕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安善한 사회와 교육체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대학의 본래의 使命인 人格完成이나 眞理探究, 창조적 知性的 形成을 위한 학문의 道場으로서 이용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의 天分과 個性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人生의 進路와 指標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아래 定置活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공학과에 필요한 각종 情報資料와 함께 졸업후 產業 내지 職業戰線에서 필요하고 당면할 문제들 事前에 지도하여야 적응이 빠르고 주어질 任務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이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에서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세밀한 情報와 案內가 필요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대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와 아울러 정보에 따른 進路의 教育 또한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II. 大學의 使命

Newman 추기경은 대학을 「모든 지식과 과학, 사실과 원리, 연구와 발견, 실험과 사색 등과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保護하는 능력을 가지고 지식의 영역을 정하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침해나 굴복을 당하지 않도록 監視하는 장소」라고 하였으며, 그는 「교양으로서의 지식」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의 지적 풍조를 振作하며, 公衆道德을 배양하고, 국가적 풍성을 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Flexner는 대학은 지식을 추구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업적을 批判적으로 평가

하며 인간을 참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養成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대중의 정열에 올바른 방향과 사람들의 포부에 일정한 목적을 주어서 시대의 思想에 중요성과 절도를 갖게 하며 정치적인 행사가 순수히 되어 나가게 하며 私生活의 교체를 洗鍊化시키는데 있다」고 Newman 추기경은 덧붙여 주장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을 크게 세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본다면 ① 基督敎精神의 토대위에 세워진 유형이고, ② 프랑스의 啓蒙主義思想을 기초로 한 自由主義의인 유형이며, ③ 현대의 革命的 科學技術의 대두로 생긴 기술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어 보면,

첫째로,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싱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基督敎精神」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다. 영국의 Oxford, Cambridge 등 역사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과 미국의 Harvard, Columbia, Princeton, Stanford, Yale, Duke, MIT 등 대부분의 私立名門大學이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학의 使命을 인간의 文化的 가치를 나누어 가지게 하며 그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두고 있으며, 眞·善·美 그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 이들은 知的 價値의 段階(目的價値)와 단순히 보조적인 手段價値가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다.

둘째로, 自由主義 유형의 대학으로 학문을 위한 학문의 進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사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大學觀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에서 출발되었다.

셋째로, 技術的인 유형의 대학이다. 자연과학 그리고 응용과학과 응용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생긴 대학은 기술적인 지식을 탐구 活用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욱 나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형을 實用主義的 大學이라고 한다. 그들은 經驗的이고 分析的이며 選擇의이다.

이상에서 세 가지 유형의 대학을 예시하였는데

대학은 본질적으로 總體的인 학문의 殿堂이 되어야 함은 再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학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다.

첫째로, 대학은 우리 민족과 인류가 쌓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文化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로, 대학은 확고한 價値觀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대학은 人格陶冶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양을 갖춘 自由人의 양성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과 사회와 세계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명백히 인식하고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民主市民을 양성하는 데 대학의 사명이 있다.

대학교육은 전전한 정신을 開發하고, 是正하고, 洗鍊하고,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지식을 씌고, 배우고, 지배하고, 사용하고 그 능력을 統御하는 힘과 適應성과 방법, 정확한 判斷力과 현명함과 機智와 숙련과 流暢한 표현 따위를 준다. 다시 말하면 教養教育과 專門教育을 통합한 綜合學問으로서 사회에 응용력을 구사하고 적용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道場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최대로 自我實現의 가능성을 탐색해 실현에 옮기는 實踐人의 육성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인은 사물과 世界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고 概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학문의 共同體(Community of Scholar)가 되어 마침내는 인류 이 상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 또는 職業教育을 병행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大勢인 듯하니 自由教育이라 할지라도 직업교육을 무시하면 그것도 대학교육의 眞意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 Ⅲ. 大學에서의 進路指導

그러면 위와 같은 대학의 사명에 비추어 대학에서의 進路指導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受容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社會生活을 통한 職業的 혹은 職分的 存在로서 일정한 직업생활을 영위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으로 하여금 장차의 직업을 探索(exploration)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自己選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은 학교교육의 제1차적인 사명이다. 대학이라고 하여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Larry Baily 에 의하면 進路指導의 성격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生産的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進路(career)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여,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직업에 들어가서는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一切의 經驗」이라고 한다.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Edwin Herr 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학교에서는 進路의 認識(career awareness), 중학교에서는 進路의 探索(career exploration), 고등학교에서는 進路의 準備(career preparation), 대학에서는 進路의 專門化(career specialization) 단계로 설정하여, 자기 발달단계에 따라 직업에 대한 理解, 探索, 準備과정을 거쳐 生産的인 職業人으로서 專門的 領域에서 종사하며 직업을 통해서 가족의 生計를 유지하고 행복한 生活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나아가 자기의 존재와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번의 選擇이야말로 生涯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인들이 사회의 역군으로서 여러 직업분야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해야 하고, 教養教育(기초교육)과 아울러 專攻教育이 實際社會에 유용한 창조적 활동에 이용되어야 한다.

Ginzberg 와 같은 직업발달 이론가에 의하면 국민학교 기간을 幻想的 段階로 지칭하고 현실적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등학교 과정을 試驗的 選擇段階로(흥미, 능력, 가치, 전환 등) 보고 자신의 취미와 흥미, 능력단계로 옮겨가며 職業選好를 자신의 價値觀 및 生涯目標에 비추어 평가해 본다. 고등학교 마지막 단계에 오

면 이때부터 점차 주관적 사고 방식에서 현실적인 外的 要因들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大學生 시절인 青年後期에 들어오면 現實을 인식하는 段階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등뿐만 아니라 환경적 제한조건을 고려하고 타협해서 進路決定에 도달하게 된다. 그의 이론에 제시된 연속적인 決定過程에서 주목할 것은 초기에는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이 職業觀을 좌우하나 중국에는 이러한 것들과 외적조건과의 타협에서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Ginzberg의 이론은 進路指導에 필요한 개인의 직업적 成熟度의 基準를 제공하고, 직업선택 과정에서의 단계별 문제의 발견과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Donald Super는 Ginzberg 이론의 미흡성을 비판하고 보다 포괄적인 발전된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주장은 개인차, 직업적 능력의 類型, 부모와의 同一視 및 모델의 役割, 적응의 계속성, 生涯段階, 進路類型, 발달의 지도 가능성, 발달이 個人과 相互作用의 결과라는 점, 직업적 만족 및 직업이 生計 유지수단이라는 점 등이 이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정은 轉換期(transition sub-stage)와 試行期(trial sub-stage)로서 어렸을 때의 과정인 幻想期, 興味期를 지나 探索期(exploration stage)에 돌입되면, 위와 같은 轉換·試行期를 맞이하여 자신의 교육받은 배경을 통해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현실적 要因을 중요시하게 된다. 바로 大學의 과정은 위와 같은 발달 단계에 따라 專攻分野의 內實을 期하게 된다.

이와 같은 進路發達段階에 비추어 대학생은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뚜렷하게 자신의 進路가 분명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우리 대중교육은 흥미나 적성에 따라 進路決定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얻어진 학력고사 점수에 의존함에 따라 大學選定이나 專攻學科가 결정이 되고, 눈치작전이나 배짱지원의 형식으로 專攻이나 大學이 선정되고 있어, 개인의 장래에 매우 불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S大學 신입생의 자기 전공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체 신입생의 40% 이상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進路指導가 잘못되어 있음을 입증하

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 40%라는 학생이 초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상급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더 늘어날 확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학교 과정의 저학년에서부터 進路教育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일단 大學에 들어와서도 進路指導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대학에서 직업 적성 검사나 人性 및 知能檢査 등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여 자기의 適性を 찾아내고 자기의 전공이 불만인 경우에는 3학년때 轉科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뒷받침을 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專攻學科 指導 教授와의 긴밀한 연락과 對話를 통해서 적응방법을 모색하는 길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不滿足한 점과 不適應 상태를 진정한 對話와 相談을 통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도록 한다. 학생생활연구소는 學業生活, 交友關係, 職業選擇과 生涯의 設計, 健康生活, 異性問題, 職業觀, 人生觀確立, 學問하는 方法, 適應問題 등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相談教授의 專門의 對話와 치료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적 기관이다. 分擔指導教授의 전문적 대화와 함께 개별적인 人性的·社會的·職業的인 문제를 포함하여 人生設計를 위해 각종 標準化檢査 방법을 이용하고 학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곳이다. 이제 대학교육은 보편화된 교양교육을 위시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인을 육성하는 곳으로 轉向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개인 학생의 專攻分野와 장차 職業世界 속의 한 분야와 연관성을 맺고, 직업인 또는 생활인으로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속에서 相互作用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학문하는 기본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IV. 끝맺음

인생의 선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로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인생관·가치관의 선택으로 인생행로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職業의 選擇이다. 일생 동안에 자기가 택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은 물론 가치로운 삶과 창조적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에 만족하고, 거기서 자기충족, 자기실현의 결과를 찾아내야 한다.

현대사회가 高學力社會로 지향됨에 따라 이제 대학교육은 학문의 전당이던 스타디움에서 벗어나 보편화된 교양교육의 기관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은 實用的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용한 직업인을 길러낼 사명을 띠고 있다. 교육의 量的인 膨脹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高等 專門人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대학은 適材適所에서 필요로 하는 人材를 공급하는 生産地로 전향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은 현실적인 社會的 要求에 따라 유용한 직업인 양성의 구실을 담당하게 되어 간다. 實際社會에 적합한 인꾼으로서, 知育, 德育, 體育을 겸비한 조화된 인간으로서 全人教育을 마스터한 교양 있는 生活人이 되는 것이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指導層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각 분야에서 生産性 提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社會改造者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유능한 人材養成을 위하여, 適合한 곳에서 能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조높은 進路指導로 항상 뒷받침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생 생활연구소내에 職業配置所(Placement Office)를 두고 각종 企業體나 公共團體, 研究機關, 學校, 事業體 등의 情報를 다양하게 보관하고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항상 새로운 현상을 제시해주고 弘報活動을 전개하여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만족할 만한 직업선택에 유용한 活力素로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大學行政當局者는 行政 및 財政의 支援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개인의 成長發達 및 就業活動에 이바지되도록 적극적인 配慮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行政的인 뒷받침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職場의 第2의 家庭化” 운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직업인으로서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고 의식개혁을 실천수범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풍토를 만드는 데 비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